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3 (2023): 87-117.
https://doi.org/10.22927/snuibe.2023.34.3.87

쿠스코 스페인어의 모음 사이 /d/ 탈락 연구

김경래
단국대학교

김경래(2023), 쿠스코 스페인어의 모음 사이 /d/ 탈락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3), 87-117.

초록 본 연구에서는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모음 사이 /d/의 변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계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여름 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회언어학 면담을 통해 획득한 24명의 발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음 사이 /d/의 변이형을 [ð], [ˠ], [ø]으로 구분하였고 1인당 100개씩 총 2400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쿠스코 지역어에서는 모음 사이 /d/가 36%의 수준으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페인의 말라가, 그라나다, 라스 팔마스 지역어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모음 사이 /d/의 탈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언어 내적 변수를 적용한 결과, 쿠스코 지역어의 모음 사이 /d/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d/의 탈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음운 환경 '–ado'가 배타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 환경과 다른 환경들 사이에 나타나는 탈락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이 다른 음운 환경들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탈락을 가장 많이 유도하는 음운 환경은 [áðe], [éðe]이며, 다음으로 [áðo]와 [óðo]가 매우 유사한 수준의 탈락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éðo], [íðo], [áða], [óða] 등의 음운 환경에서도 탈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어 계량언어학, 방언학, 음운 변이, 모음 사이 /d/ 변이, 페루 스페인어

I. 들어가는 말

스페인어에는 지역과 화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 발화에서 몇몇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음절말 자리에 출현하는 치경 마찰음 /s/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분절음은 스페인 남부와 카리브 지역 등에서 상당한 비율로 탈락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동일한 음절말 자리에서 탄설음 /ɾ/이 발음되지 않고 가끔씩 생략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음 사이 환경에서 /j/가 탈락되어 *Trujillo*의 경우 [tɾuxío]로 실현되기도 한다(Escobar 1978).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치음 /d/ 역시 여러 스페인어 사용 지역에서 단어의 첫머리나 마지막, 또는 단어의 내부에서 탈락되는 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음소는 모음 사이 위치에서 자주 탈락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발생한 현상이며, 그만큼 스페인어권 여러 지역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Gómez y Gómez 2010; Moreno 2005). 이렇게 모음 사이에서 /d/가 탈락되면 이 음소의 앞뒤로 있으면서 다른 음절에 속하는 모음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todo의 경우 [to:]와 같이 모음이 길어지거나 또는 결합되어 [to]와 같이 발음된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치음 /d/의 탈락 현상을 다룬다. 특히 이 분절음이 모음 사이에 출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쿠스코는 페루의 남동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도시이다. 전통적으로 안데스 산맥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이 방언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학계에서 안데스 스페인어(español andino)라는 명칭으로 언급되며, 쿠스코 역시 안데스 지역에 속하는 만큼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역시 안데스 스페인어의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쿠스코 지역어의 몇몇 언어적 자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개설측음 /ʎ/의 보존과 탄설음, 전동음 /ɾ/, /r/의 마찰음화에 주목한 De los Heros(1998; 2000)과 Alvord *et al.*(2005)가 있다. 하지만 쿠스코를 비롯한 안데스 지역에서는 이런 특징적인 음운 현상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다보니 다른 음운 변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한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바로 음절말 /s/의 변이에 관한 연구이다. 김경래(2023)는 쿠스코에서 현지인들과 사회언어학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음절말 /s/가 87.6%로 유지되고 있어 이 음소의 사용이 매우 보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스페인어 방언학과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모음 사이 /d/의 변이가 쿠스코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모음 사이 /d/가 보수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약화 현상이 크게 진행되어 /d/가 빈번히 탈락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 가설을 수립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동 지역에서 진행된 모음 사이 /d/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설 수립을 위해 김경래(2023)에서 연구된 음절말 /s/의 분석 결과에 기대어 본다.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음절말 /s/의 약화 과정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모음 사이 /d/ 역시 보수적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강한' 자음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멕시코시티 스페인어의 경우 음절말 /s/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모음 사이 /d/ 역시 탈락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Hualde 2005; Reyes 2014; Serrano 2002). 또한,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음절말 /s/의 탈락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모음 사이 /d/도 대략 80%의 수준으로 유지된다(Samper y Hernández 2010). 페루의 쿠스코 역시 멕시코시티나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일부 자음의 약화 현상이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내륙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모음 사이 /d/가 높은 비율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특정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이 양상에 관한 예상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수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음소는 많은 경우 강세 모음에 후행하는 동시에 단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질 때 곧잘 탈락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여러 스페인어 사용 지역에서 실시된 다수의 연구

는 '-ado' 환경에서 /d/의 탈락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모음 사이 /d/ 탈락을 주도하는 환경은 바로 이 '-ado'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쿠스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에 관하여 계량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이형의 출현 양상을 확인하고, 타 스페인어권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쿠스코 지역어의 모음 사이 /d/가 보편적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특수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 변수의 영향은 분석하지 않고 음운 변수와 문법적 변수와 같은 언어 내적 변수만을 다룰 것이다.

Ⅱ. 선행 연구

발음 상의 편리에 따라 소리가 감소되거나 완전히 생략되는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스페인어권의 많은 지역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 음소의 변이 양상은 학위 논문에서도 가끔씩 다뤄지는 주제로 Nitola(2018)에서와 같이 단일 주제로 연구되거나 Molina(1991), Peralta(2017) Pérez(2003), Samper(1988), Serrano(2002)에서처럼 특정 방언의 다양한 음소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량적 연구에서는 대부분 음소의 변이음들을 치음이 뚜렷하게 실현된 형태인 [ð]와 접근음이 이완되어 약하게 발음된 형태인 [ð̞], 그리고 생략되어 어떠한 음가도 갖고 있지 않는 탈락형 [ø]으로 구분하고 미리 수집된 발화 자료에 출현하는 모음 사이 /d/를 정량화한 후 수치를 제시한다. 각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약화 과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보수적인 방언들과 탈락률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방언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각 연구에서 제시된 변이형들의 출현 비율에 따라 스페인어 방언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ð] > [ð̞] > [ø]
B. [ð] > [ø] > [ð̞]
C. [ð̞] > [ð] > [ø]
D. [ø] > [ð] > [ð̞]
E. [ø] > [ð̞] > [ð]

접근음 [ð]이 가장 많이 출현하고 탈락 [ø]이 가장 적은 A 유형에는 엘이에로(Pérez 2003), 파나마(Cedergren 1973)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페인어 방언은 모음 사이 /d/의 실현과 관련하여 B 유형에 속한다.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페루의 투페(Kim 2019)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C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언에는 라스 팔마스 교양스페인어(Samper y Pérez 1998)가 있다. D 유형에는 라스 팔마스(Samper y Pérez 1998)가 속하며, E 유형에는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 방언이 해당된다. 모음 사이 /d/의 변이에 대한 계량적 연구들은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 분절음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약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현대 변이 사회언어학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d/가 탈락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다양한 언어 내적, 외적 변수들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음 사이 /d/의 탈락을 유도하는 언어 내적 변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언어 변수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연구 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음 사이 /d/의 약화 원인에 대한 관점 및 연구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적 제약에서부터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검토되는 변수의 종류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 논문에서 스무 가지가 넘는 변수들이 적용되는 연구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에서 다수의 설명변수들이 나타내는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물론 연구에 따라 점검하는 요인들이 상이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설명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운 환경이다. 모음 사이 /d/의 탈락을 가장 많이 유도하는 음운 환경을 찾아내고자 많은 연구

에서 이 음소에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모음을 구분하여 따로 분석하고 있으며,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스페인의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세비야(Jiménez 2019, 2020), 투페(Kim 2019) 등의 지역에서는 /d/의 선행 모음이 강세 모음 [á]일 경우와 후행 모음이 비강세 모음 [o]일 경우에 탈락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다. 콜롬비아 툰하(Nitola 2018)에서는 후행 모음 [í]가 [o]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선행 모음만큼은 [á]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모음 [á], [o]와 /d/를 조합하여 형성되는 구조인 [áðo]에서 탈락이 가장 활발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선행모음과 후행모음을 분석한 다음 별도로 [áðo]와 같이 모음과 자음이 조합된 형태들의 탈락률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있고, 선행모음과 후행모음을 따로 분석하지 않고 이 조합된 형태들만을 다루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사실 최근 실시된 모음 사이 /d/의 변이에 관한 계량적 연구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일부 학자들은 '-ado'가 /d/의 탈락률을 가장 많이 유도하는 환경임을 언급한 바 있다. Menéndez Pidal(1987, 129)은 20세기 초에 /d/가 '-ado'에 나타나는 경우 교양 스페인어에서도 탈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구어체에서 폭넓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Seco(1982, 278)는 비격식적 상황에서 '-ado'가 과거분사, 형용사, 명사로 출현할 때 '-ao'로 발음되며 이것이 '-ada'와 '-ido', '-udo', '-odo' 등의 형태에 확산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는 여러 모음 환경 중에서 특별히 '-ado' 환경만을 다루고 있다(Díaz 1975, Blas 2006).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ado'가 /d/의 약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환경임을 입증하였는데, 실제로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세비야(Jiménez 2019; 2020), 라스 팔마스(Samper 1988), 카라카스(D'Introno y Sosa 1986), 투페(Kim 2019) 등의 지역에서는 이 환경에서 /d/가 가장 많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ado'가 아닌 다른 음운 환경에서 탈락이 더 빈번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Alba 2000)에서는 '-oda'에서 /d/가 가장 많이 탈락되었다. 그러나 '-ado'와 탈락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ado'는 '-oda'와 함께 중요한 음운 환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엘 이에로(Pérez 2003)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d/의 탈락률이 '-oda', '-odo', '-edo', '-eda', '-ado'의 순서로 나타나 모음 사이 /d/의 약화 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음운 환경과 관련한 다른 설명 변수로 /d/가 속한 음절과 관련한 단어 내 강세의 위치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스페인어의 강세는 단어 내에서 /d/가 속한 음절에 곧바로 선행하는 음절이나 후행하는 음절에 위치할 수도 있고, /d/가 속한 음절에서 2음절 이상 앞이나 혹은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d/가 속한 음절이 강세 음절일 수도 있다. 또한, /d/의 위치와 관련하지 않고 단어 자체적으로 끝음절에 강세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끝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 수 있다. Henríquez Ureña(1975)는 /d/ 탈락과 관련하여 단어의 강세에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이다. 그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 중 /d/가 강세음절 바로 뒤에 위치할 때 탈락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세비야(Jiménez 2019; 2020),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 투페(Kim 2019)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cada*, *lado* 등과 같이 /d/에 바로 선행하는 음절에 강세를 가진 단어이면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가진 단어들에서 탈락이 가장 빈번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lba(2000)는 이렇게 /d/의 선행 음절이 강세 음절일 경우 탈락률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코퍼스에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변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다른 결과는 단어의 강세 음절이 /d/가 속한 음절에서 멀수록 탈락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rápido*와 같은 단어에서는 /d/가 잘 탈락되지 않고 음가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툰하(Nitola 2018)에서는 이 변수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d/ 바로 앞에 강세가 있는 경우와 앞이나 뒤로 2음절 이상 거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탈

락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단어가 가진 음절의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 코퍼스에서 /d/를 포함한 단어들을 2음절 단어, 3음절 단어, 그리고 다음절 단어로 구분한 후 변이 양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앞서 살펴본 다른 변수에 비해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툰하(Nitola 2018)에서는 3음절 단어에서 탈락률이 더 많았고, 세비야(Jiménez 2019)의 저학력 화자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에서는 3음절 단어와 다음절 단어가 동률을 기록했다. 투페(Kim 2019)에서는 다음절 단어에서 탈락이 가장 많았으며,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에서는 2음절 단어에서 탈락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음 사이 /d/의 변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단어의 문법 범주도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일반적인 경향은 바로 치음 /d/가 복합완료과거에서 과거분사의 일부를 구성할 때 탈락이 가장 빈번하다는 것이다(Alba 2000; Jiménez 2019; Jiménez 2020; Molina y Padres 2014; Moya y García 2009; Nitola 2018; Villena y Moya 2016, etc.). 과거분사 다음으로 형용사에서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반면에 명사에서는 탈락이 낮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점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이다(Gómez y Gómez 2010; Jiménez 2019; Jiménez 2020; Molina y Padres 2014; Moya y García 2009; Villena y Moya 2016, etc.). 하지만 모든 스페인어권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에서는 과거분사보다 한정사에서 탈락이 가장 많았다.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에서도 한정사가 가장 높은 탈락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 대명사, 부사, 과거분사, 형용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편, Alba(2000)에서는 단어의 문법 범주로 형용사, 과거분사, 명사, 동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표제어로 nada와 todo/a만을 별도로 분석한 바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적 설명 변수의 분석이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모음 환경과 문법적 범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에서는 '-ado'의 형태를 갖는 범주 중에서 형용사, 부사, 명사를 제치고 과거분사가 가장 높은 탈락률을 나타냈고, '-odo', '-oda'의 경우 대명사로 사용될 때보다 한정사로 기능할 때 탈락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todo(s)*, *toda(s)*가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이 증가하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탈락이 감소한 것이다.

일부 연구는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어휘의 사용빈도(frecuencia de uso)를 검토한다(Alba 2000; Blas 2006; Moya y García 2009; Villena y Moya 2016, etc.).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일수록 해당 분절음의 마모가 가속화된다는 가정 하에 많은 연구에서 '어휘 확산'이라는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además, adelante, boda, cada, nada, poder, quedar, todavía, todo, vida*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표제어들을 대상으로 /d/가 탈락되는 빈도를 분석한다. 특히 Almeida(2013)는 음운 변이에 대한 빈도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지역어에서 어휘 사용 빈도가 모음 사이 /d/ 그리고 /ʃ/의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쿠스코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 양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2022년 페루 쿠스코에서 수집한 사회언어학 면담(entrevista sociolingüística) 자료이다. 이 자료는 김경래(2023)에서 음절말 /s/의 변이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와 동일하다. 면담 참여자는 남성 12명, 여성 12명이며, 이 24명의 참여자는 다시 청년층 8명, 중년층 8명, 노년층 8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치음 /d/는 모음 사이에서 [ð], [ⁿ], [ø]의 세 변이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변이형은 설첨이 윗니 혹은 위아래 앞니에 접촉하며 실현되는 소리로 온전한 발음으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형태다. 두 번째 변이형은 첫 번째 변이형이 크게 약화된 형태로 혀의 움직임이 적어 접촉의 강도가 낮다.

따라서 치음이 매우 약하게 실현되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탈락형과는 구분된다. 마지막 변이형인 탈락형은 어떠한 음가도 갖고 있지 않아 청각적으로 인지되는 요소가 없으며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의 연속으로 들리게 된다.

이러한 변이형들은 많은 경우 청각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지만 화자가 말을 빠르게 하는 경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음성 분석 도구인 프랏(praat)을 사용하여 변이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다른 많은 연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ibro de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연음되며 'VCV'가 형성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d/가 오직 단어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만 분석하였다. 또한, *estudiante, radio*와 같이 /d/ 다음에 반자음이 오는 경우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기에[1]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d/가 약화되지 않고 온전한 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 접근음 [ð]가 대세를 형성한다. 하지만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일부 화자들이 모음 사이 /d/를 폐쇄음 [d]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 연구는 모음 사이 /d/의 탈락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폐쇄음도 접근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뚜렷이 지각될 수 있는 형태이기에 [ð]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변이형들을 구분하면서 참여자 1인당 100개씩의 사례를 검토하여 총 2400개의 사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II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많은 독립 변수의 영향이 고려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 변수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언어 내적 변수의 영향을 살피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음운 환경에 속하는 설명 변수로 강세의 위치, 단어의 음절수, 단어의 강세 구조,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을 설정하였고, 문법과 관련한 설명 변수로 문법 범주, 형태소의 경계를 검토하였다.

1) Alba(2000, 55)는 반자음 /j/ 앞에서 /d/가 잘 탈락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j/가 갖는 고모음의 특성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자음이 구강의 앞쪽에서 발음되며 치음 /d/의 조음점에 근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V.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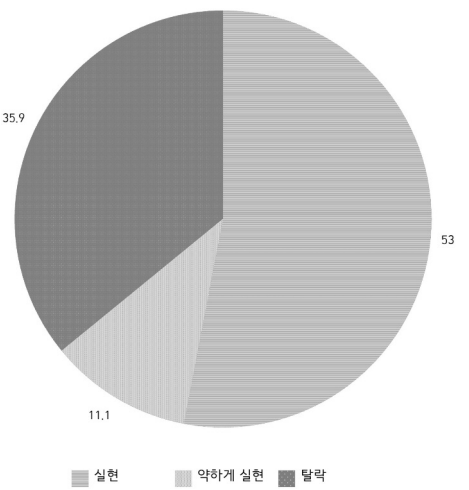
이번 장에서는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사이 /d/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언어 내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전체적인 실현 빈도와 각 변수별 결과를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쿠스코 지역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쿠스코만의 차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1. 총 실현 빈도

먼저 쿠스코 지역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 변이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총 실현 빈도[2)]

	빈도수	백분율
[ð]	1,272	53.0%
[ð̞]	266	11.1%
[ø]	862	35.9%
합계	2,400	100%



〈그림 1〉 쿠스코 지역어에서 모음 사이 /d/의 총 실현 빈도

쿠스코 지역어에서 가장 큰 비율로 실현되는 변이음은 53%로 나타난 접근음 [ð]이다. 이 형태는 세 변이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변이음이 쿠스코에서 규범적이고 매우 일반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음 사이 /d/의 탈락이 대략 36%로 나타나 1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하게 실현된 형태인 [ð̞]도 11.1%로 출현하였는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쿠스코 지역어에서 탈락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언어학자들이 모음 사이 /d/의 탈락 현상은 일반적으로 중남미에서보다는 스페인에서 더욱 진전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Alba 2000, 52). 쿠스코 지역어에 나타난 결과를 <표 2>에 제시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쿠스코의 모음 사이 /d/ 탈락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쿠스코는 모음 사이 /d/가 보수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콜롬비아의 툰하나 스페인의 발렌시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카리브 지역에 속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나 파나마보다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탈락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쿠스코의 탈락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일부 지역별 모음 사이 /d/ 탈락 양상

언어 공동체	탈락(%)
툰하(Nitola 2018)	6.0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10.7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14.3
엘 이에로(Pérez 2003)	15.2
파나마(Cedergren 1973)	20.0
산티아고(Alba 2000)	23.0
말라가(Villena y Moya 2016)	33.6
그라나다(Villena y Moya 2016)	36.5
투페(Kim 2019)	36.6
라스 팔마스(Samper 1988)	37.7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	54.0

2) 앞서 언급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접근음 [ð]는 폐쇄음 [d]도 포함한다.

이 결과는 쿠스코에서 음절말 /s/의 탈락률이 5.8% 수준(김경래 2023)에 머문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스페인어에서 종종 약화 현상을 보이는 또 다른 분절음인 음절말 /s/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반해 모음 사이 /d/는 약화 현상이 꽤 진전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쿠스코 스페인어는 음성학적으로 보수적 양상을 나타내는 마드리드 지역어(Molina y Paredes 2014)나 강한 자음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스페인어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나 멕시코시티에서는 음절말 /s/와 모음 사이 /d/가 모두 보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 주요 음운 환경 별 모음사이 /d/ 실현 분석

모음 사이 /d/의 탈락에 대한 언어 내적 변수의 영향을 살피기에 앞서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모음사이 /d/의 탈락 양상이 다른 스페인어권 지역과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특정한 문맥으로 축소시키며 모음 사이 /d/의 탈락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음운 문맥에서의 실현 빈도를 파악한다. 이것은 전체 실현 빈도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제한적 음운 환경(entorno restringido)'으로 알려진 음운 문맥에서의 실현 빈도를 파악한다. 이 음운 환경에서는 *cada, estado, sido, vida* 등과 같이 단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동시에, 'd'가 속한 음절이 강세 음절에 바로 후행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치음 /d/가 어휘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법 형태소일 경우로 한정하여 그 실현 양상을 살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ado' 문맥만 고려한다. 스페인어권 각 지역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특정적 환경이 될수록 탈락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아래 표를 통해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는지 확인해보자.

〈표 3〉 일부 말소리 문맥에 따른 모음 사이 /d/의 변이 양상

	[ð]	[ˢ]	[ø]	합계
전체	1,272(53.0%)	266(11.1%)	862(35.9%)	2,400
제한적 음운 환경	844(46.8%)	219(12.1%)	740(41.0%)	1,803
형태소	443(48.6%)	99(10.9%)	370(40.6%)	912
-ado	233(42.1%)	62(11.2%)	259(46.8%)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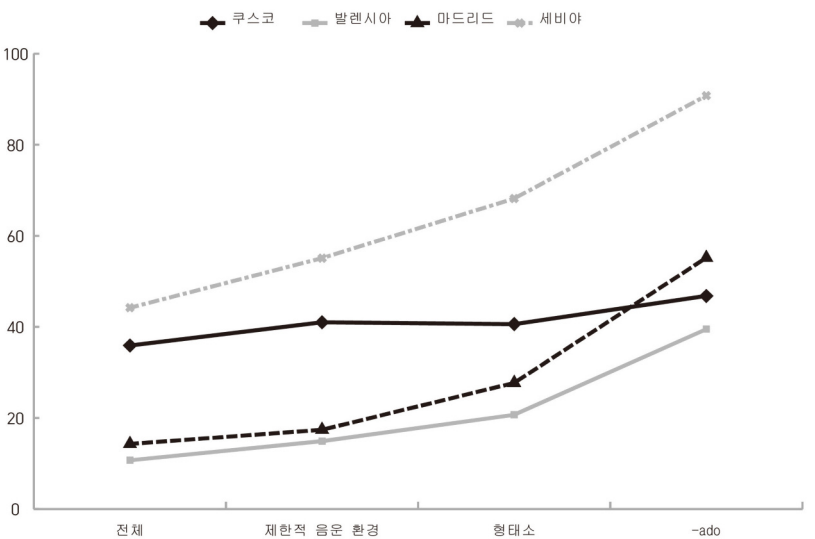
<표 3>에 나타난 결과는 모음 사이 /d/의 탈락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코퍼스 전체에서는 모음 사이 /d/가 35.9%의 비율로 탈락되는 반면 '-ado' 환경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46.8%의 비율로 탈락되어 양자 간 대략 11%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do'는 나머지 두 음운 문맥과 비교해서도 더 높은 탈락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이 양상이다. 하지만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잘 살펴보면 쿠스코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바로 전체 코퍼스에 나타나는 탈락률과 '-ado'에 나타나는 탈락률 사이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소리 문맥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른 지역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는 쿠스코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음운 문맥에 따른 모음 사이 /d/의 탈락률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네 도시에 나타나는 음운 문맥별 모음 사이 /d/의 탈락 빈도

	쿠스코	발렌시아	마드리드	세비야
전체	35.9%	10.7%	14.3%	44.2%
제한적 음운 환경	41.0%	14.9%	17.4%	55.1%
형태소	40.6%	20.7%	27.7%	68.2%
-ado	46.8%	39.5%	55.2%	90.8%

발렌시아: Gómez y Gómez(2010)
마드리드: Molina y Paredes(2014)
세비야: Jiménez(2019)

<표 4>를 보면 발렌시아는 자료 전체에서 탈락이 10.7% 출현하였고 '-ado'에서 39.5% 출현하여 양자 간에 29%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는 전체 자료와 '-ado' 간에 41%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며, 세비야는 4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쿠스코는 11% 포인트 차이만를 보이고 있어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음운 환경이 한정될수록 점진적으로 탈락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쿠스코에서는 형태소에서의 탈락률이 제한적 음운 환경에서의 탈락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네 개 도시에 나타나는 음운 문맥별 모음 사이 /d/의 탈락 빈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쿠스코 지역어에서는 모음 사이 /d/ 탈락이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절음의 탈락에 있어서 '-ado'가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음운 환경으로 약화 현상이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방법론에서 언급한 언어 내적 설명 변수들을 적용하여 쿠스코에서 모음 사이 /d/의 변이가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자.

3. 모음 사이 /d/ 탈락에 대한 언어 내적 변수의 영향

모음 사이 /d/의 탈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 설정한 언어 내적 설명 변수 중 먼저 음운 환경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변수는 강세의 위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단어 내 강세의 위치는 모음 사이 /d/의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특히 /d/에 바로 선행하는 음절에서 탈락이 제일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스코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금부터는 [ð]와 [ˠ]를 실현형으로 보고 탈락 [ø]과 대립시켜 변이 양상을 파악한다.

〈표 5〉 /d/가 속한 음절을 기준으로 한 강세 위치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2음절 이상 앞에 강세	24(92.3%)	2 (7.7%)	26 (1.1%)
1음절 앞에 강세	1,079(59.3%)	741(40.7%)	1,820(75.8%)
2음절 이상 뒤에 강세	17(85.0%)	3(15.0%)	20 (0.8%)
1음절 뒤에 강세	71(67.6%)	34(32.4%)	105(4.4%)
강세 음절	347(80.9%)	82(19.1%)	429(17.9%)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음 사이 /d/ 탈락은 이 음소에 바로 선행하는 음절에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 가장 활발한 것(40.7%)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cada, dado, demasiado, todo, vida*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rápido, rodearán*과 같이 /d/가 속한 음절과 단어의 강세 음절이 거리가 멀수록 탈락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이점에 관해서는 쿠스코 스페인어도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세의 위치와 관련하여 쿠스코 스페인어의 특징적인 점들도 발견되는데, 바로 단어 내에서 강세가 1음절 뒤에 나타난 경우(예를 들어 *además*)도 32.4%의 정도로 탈락이 나타

난다는 점이다. 또한 강세 음절에서도 탈락률이 19.1%를 기록하였는데, *pedimos*와 같이 강세 음절에 /d/가 위치하는 경우 강세가 가진 특성상 자음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히려 2음절 이상 앞이나 뒤로 강세가 있는 경우보다 탈락이 높게 나타나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d/와 관련한 단어 내 강세의 위치가 아닌 단어가 자체적으로 갖는 강세의 위치와 관련하여 탈락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많은 연구를 통해 모음 사이 /d/의 탈락은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인 동시에 강세음절 바로 뒤에 /d/가 나타나는 경우에 가장 활발하다.

〈표 6〉 단어의 강세 구조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끝에서 셋째 음절에 강세	45(93.8%)	3 (6.2%)	48 (2.0%)
끝에서 둘째 음절에 강세	1,322(61.7%)	822(38.3%)	2,144(89.3%)
끝음절에 강세	171(82.2%)	37(17.8%)	208 (8.7%)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6>을 보면 쿠스코 지역어도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d/ 탈락은 끝에서 둘째 음절에 강세를 갖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38.3%). 이 설명 변수와 이전 설명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교차표를 만들어보았다.

〈표 7〉 /d/와 관련한 강세 위치와 강세 구조의 교차 분석

	끝에서 셋째 음절	끝에서 둘째 음절	끝음절
2음절 이상 앞	2(8.0%)	0 (0.0%)	0 (0.0%)
1음절 앞	1(6.7%)	740(41.0%)	0 (0.0%)
2음절 이상 뒤	0(0.0%)	1 (8.3%)	2(28.6%)
1음절 뒤	0(0.0%)	29(35.4%)	5(25.0%)
강세 음절	0(0.0%)	52(21.1%)	30(16.8%)

위 표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인 동시에 1음절 앞에 강세가 나타날 때 탈락률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의 강세와 모음 사이 /d/ 탈락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강세와 관련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바로 'VCV'의 구조에서 선행 모음이 강세 모음일 경우 그리고 후행 모음은 비강세 모음일 경우 /d/가 더욱 높은 빈도로 탈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스페인어의 모음 중 어떤 모음에서 탈락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강세 모음일 경우와 비강세 모음일 경우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자. 먼저 선행 모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선행 모음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á]	450(56.0%)	354(44.0%)	804(33.5%)
[é]	94(60.3%)	62(39.7%)	156 (6.5%)
[í]	270(67.3%)	131(32.7%)	401(16.7%)
[ó]	240(55.6%)	192(44.4%)	432(18.0%)
[ú]	22(91.7%)	2 (8.3%)	24 (1.0%)
[a]	66(88.0%)	9(12.0%)	75 (3.1%)
[e]	119(83.2%)	24(16.8%)	143 (6.0%)
[i]	136(73.5%)	49(26.5%)	185 (7.7%)
[o]	97(72.4%)	37(27.6%)	134 (5.6%)
[u]	44(95.7%)	2 (4.3%)	46 (1.9%)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8>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d/에 선행하는 모음이 비강세 모음일 경우보다는 강세 모음일 경우 더 높은 빈도로 탈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ú]를 제외한 나머지 강세 모음들에서 탈락이 30% 이상 출현하고 있다. 이 강세 모음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ó] 44.4% > [á] 44% > [é] 39.7% > [í] 32.7%

선행 모음이 강세 모음일 경우, 특히 이 강세 모음 중에서 [á]와 [ó]일 경우 치음 /d/가 높은 비율로 탈락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양상이다. 특히,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세비야(Jiménez 2019; 2020) 등에서는 [á]가 다른 모음들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고,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에서는 [ó]가 [á]를 작은 차이로 앞서고 있다. 선행 모음의 영향과 관련하여 쿠스코는 카라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d/에 후행하는 모음 중 어떤 성격의 모음이 탈락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9〉 후행 모음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á]	164(77.4%)	48(22.6%)	212 (8.8%)
[é]	63(88.7%)	8(11.3%)	71 (3.0%)
[í]	50(79.4%)	13(20.6%)	63 (2.6%)
[ó]	31(96.9%)	1 (3.1%)	32 (1.3%)
[ú]	34(75.6%)	11(24.4%)	45 (1.9%)
[a]	277(69.1%)	124(30.9%)	401(16.7%)
[e]	78(55.3%)	63(44.7%)	141 (5.9%)
[i]	40(81.6%)	9(18.4%)	49 (2.0%)
[o]	788(57.4%)	584(42.6%)	1,372(57.2%)
[u]	13(92.9%)	1 (7.1%)	14 (0.6%)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d/에 후행하는 모음들 중 강세 모음들의 경우 어떠한 모음도 탈락이 2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 강세 모음들 중에서는 두 모음이 40% 이상의 탈락률을 나타내고 있고 한 모음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 비강세 모음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 44.7% > [o] 42.6% > [a] 30.9%

바로 앞서 언급된 지역들에서는 비강세 모음 [o] 앞에서 /d/가 가장 많이 탈락되고 다음으로 [a], 그리고 나머지 모음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쿠스코에서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탈락 패턴은 타 지역과 비교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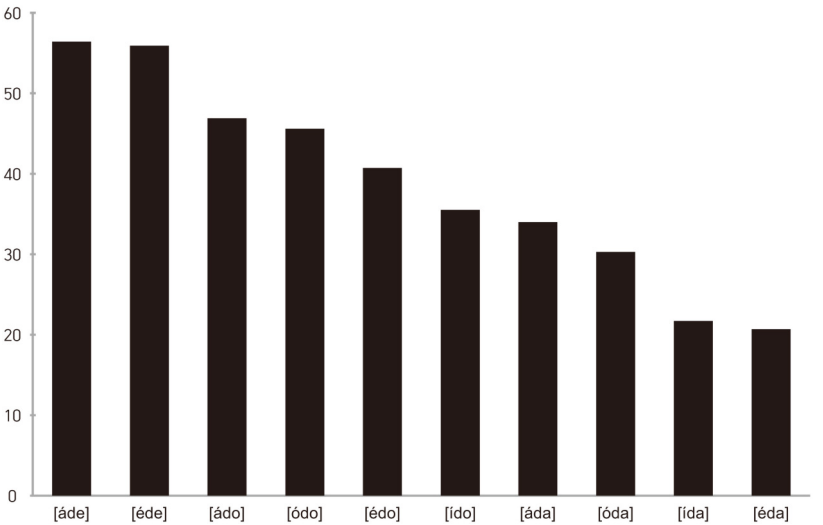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따라 모음 사이 /d/의 탈락은 [강세모음]_[비강세모음]의 음운 환경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모음 사이의 /d/ 탈락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높은 비율로 탈락을 유도하고 있는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을 조합해보았다. 아래 표에서는 이렇게 조합한 음운 환경별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음운 환경별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áða]	136(66.0%)	70(34.0%)	206(11.6%)
[áðe]	17(43.6%)	22(56.4%)	39 (2.2%)
[áðo]	297(53.1%)	262(46.9%)	559(31.5%)
[éða]	23(79.3%)	6(20.7%)	29 (1.6%)
[éðe]	26(44.1%)	33(55.9%)	59 (3.3%)
[éðo]	32(59.3%)	22(40.7%)	54 (3.0%)
[íða]	54(78.3%)	15(21.7%)	69 (3.9%)
[íðo]	211(64.5%)	116(35.5%)	327(18.4%)
[óða]	23(69.7%)	10(30.3%)	33 (1.9%)
[óðo]	217(54.4%)	182(45.6%)	399(22.5%)
합계	1,036(58.4%)	738(41.6%)	1,774(100%)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탈락률을 보이는 음운 구조는 [áðe]이며, 다음으로 [éðe]에서 탈락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음운 구조는 55% 이상의 탈락률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áðo]와 [óðo]가 유사한 수준으로 46% 내외의 탈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éðo]의 구조에서는 /d/가 대략 40%의 수준으로 탈락되었으며, [íðo], [áða]의 환경에서는 35% 정도로 /d/가 탈락되었다. [óða]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30% 정도의 탈락률을 기록했고, 끝으로 [éða]

와 [íða]는 대략 21% 내외로 탈락되었다. 후행 모음이 [a]인 [áða], [éða], [óða], [éða]에서는 후행 모음이 [o]로 끝나는 구조에서보다 탈락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탈락에 있어서 모음의 역할은 실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음운 환경별 탈락 빈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음운 환경별 탈락 빈도

많은 연구에서는 '-ado' 환경이 모음 사이 /d/ 탈락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쿠스코에서는 이와 유사한 [áðo] 환경이 선두에 있지도 않으며 [óðo]등의 나머지 하위 음운 환경들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이 지역에서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이 다양한 음운 문맥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음운 환경과 관련한 변수 중 마지막으로 단어의 음절 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1〉 단어의 음절수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2음절	582(62.3%)	352(37.7%)	934(38.9%)
3음절	527(67.2%)	257(32.8%)	784(32.7%)
다음절	429(62.9%)	253(37.1%)	682(28.4%)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d/의 탈락은 2음절 단어와 다음절 단어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3음절 단어에서는 나머지 단어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서는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를 제외하고 3음절 단어에서 탈락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음절 단어에는 *cada, dado, lado, nada, todo(s), toda(s), vida* 등이 해당되는데 쿠스코에서는 이런 단어들에서의 탈락이 3음절 단어들에서의 탈락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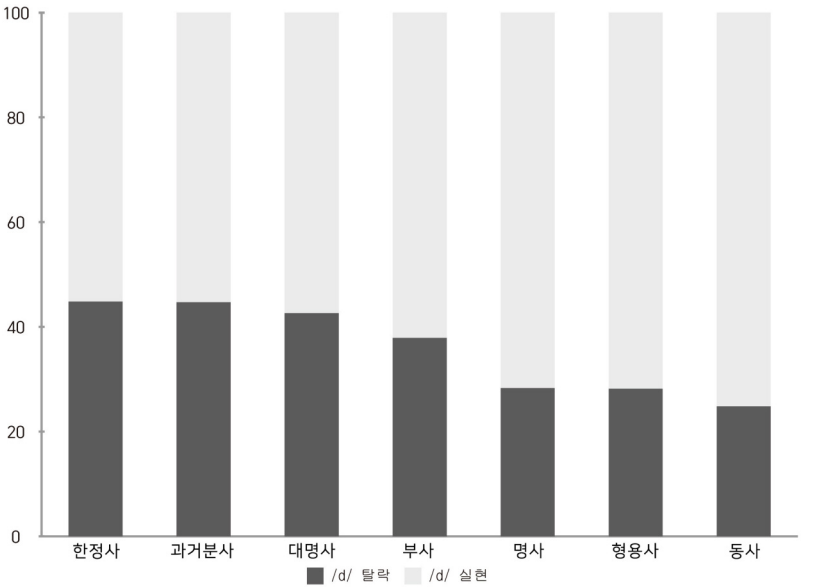
지금까지 음운 환경에 따른 모음 사이 /d/의 탈락 양상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형태와 관련한 언어 내적 변수를 두 가지 살펴본다. 먼저 각 단어별 문법 범주에 따른 탈락 양상을 살펴본다. 앞서 [áðo]의 구조를 가진 단어에서 탈락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갖는 단어들은 *(hemos) estado, lado, demasiado, pasado*와 같이 과거분사, 명사, 부사, 형용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탈락이 더 흔한지 문법 범주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탈락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음운 환경인 [óðo]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단어는 *todo(s)*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대명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법적 기능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문법 범주에 따른 변이 양상

	실현	탈락	합계
과거분사(복합완료과거)	347(55.3%)	280(44.7%)	627(26.1%)
나머지 동사 형태	227(75.2%)	75(24.8%)	302(12.6%)
명사	430(71.7%)	170(28.3%)	600(25.0%)
형용사	163(71.8%)	64(28.2%)	227(9.5%)
대명사	152(57.4%)	113(42.6%)	265(11.0%)
부사	87(62.1%)	53(37.9%)	140(5.8%)
한정사	132(55.2%)	107(44.8%)	239(10.0%)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위 표를 통해 쿠스코 지역어의 모음 사이 /d/ 탈락 양상이 한 단계 더 자세히 파악된다. /d/의 탈락은 *todo(s), toda(s), cada* 등의 한정사와 *(hemos) estado*와 같이 복합완료과거에 사용되는 과거분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각각 44.8%, 44.7%). 또한 *todo, nada* 등의 대명사에서도 탈락률이 42.6%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탈락 비율이 높게 나타난 문법 범주는 *además, todavía*와 같은 부사이다(37.9%).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나머지 동사 형태들은 30% 이하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쿠스코 지역어는 문법 범주에서도 타 지역과 일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말라가(Villena y Moya 2016), 세비야(Jiménez 2019; 2020), 툰하(Nitola 2018), 도미니카공화국(Alba 2000) 등의 지역에서는 과거분사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발렌시아(Gómez y Gómez 2010)와 카라카스(Malaver y Perdomo 2016)에서는 한정사가 가장 높은 탈락 확률을 보였다. 문법 범주의 영향과 관련하여 쿠스코 지역어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역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 문법 범주별 /d/ 탈락 vs. 실현

계속해서 쿠스코 지역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 탈락에 대한 양상을 한 단계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앞서 분석한 주요 음운 환경과 문법 범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áðo]의 경우 이 형태를 갖는 단어가 복합완료과거의 과거분사일 경우 52%, 형용사일 경우 39%, 명사일 경우 39%, 부사일 경우 38%의 비율로 /d/가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분사에서 탈락이 가장 많은 것은 스페인어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분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에서 탈락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쿠스코에서는 *pasado, complicado* 같은 형용사, *lado*와 같은 명사, *demasiado*와 같은 부사에서도 모두 40% 정도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óðo]의 경우를 보자. 이 형태를 갖는 단어가 한정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탈락률이 51%에 이르며,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43%가 탈락된다. 이 형태를 갖는 대표적인 단어는 *todo(s)*이다. 따라서 *todo(s)*가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보다 수식을 하는 경우 더 많이 탈락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óð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정사일 경우 36%의 탈락률을, 대명사일 경우 0%의 탈락률을 나타냈다. 역시 이 형태를 갖는 대표적인 단어는 *toda(s)*로서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를 수식하는 경우 /d/의 음가가 높은 빈도로 생략되며 반면, 대명사로 쓰여 독립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음가가 보존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íðo]의 경우를 보자. 이 형태를 갖는 단어들이 과거분사일 경우 38%의 비율로 /d/가 탈락되었고, 명사일 경우와 동사일 경우에는 각각 27%와 25%의 비율로 탈락되었으며, 형용사일 경우 17%의 탈락률을 나타냈다. [íðo]의 구조를 갖는 단어들 중에서도 역시 복합완료과거의 과거분사일 경우 가장 많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과거분사 형태인 [áðo]에 비해서는 역시 그 수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스페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áða]의 경우도 문법 범주와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부사, 대명사, 명사, 형용사, 한정사로 나타난 경우 각각 52%, 48%, 26%, 25%, 24%의 탈락률을 보였다. 이 구조가 나타나는 단어로 *cada, nada, cuñada, pasada*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에서 '형태소의 경계'로 다뤄진 어휘소와 형태소의 대립이 모음 사이 /d/ 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3〉 형태소의 경계가 미치는 영향

	실현	탈락	합계
어휘소	996(66.9%)	492(33.1%)	1,488(62.0%)
형태소	542(59.4%)	370(40.6%)	912(38.0%)
합계	1,538(64.1%)	862(35.9%)	2,400(100%)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치음 /d/가 *cada, codo, nadar, pedir, poder, quedar, todo* 등와 같이 어휘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보다, *-ado(s), -ada(s), -ido(s), -ida(s)* 등과 같이 형태소의 일부인 경우 탈락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쿠스코에서

/d/가 어휘의 일부인 경우 음소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형태소의 일부인 경우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며, 타 방언과 비교하여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기존의 여러 연구와 비교하여 쿠스코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Molina y Paredes 2014), 그라나다(Moya y García 2009), 발렌시아(Gómez y Gómez)에서는 각각 35.8%, 29%, 15.1% 포인트의 차를 나타냈는데, 쿠스코에서는 7.5% 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쿠스코 지역어에서는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이 어휘소에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쿠스코 지역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 탈락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쿠스코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36%의 수준으로 /d/가 탈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치는 쿠스코 지역어가 모음 사이 /d/ 탈락과 관련하여 스페인의 그라나다, 말라가, 파스 팔마스 지역어와 유사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필자의 예상에 반하는 결과였다. 쿠스코에서 음절말 /s/는 87.3%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반해 모음 사이 /d/는 53%만이 온전한 형태로 발음되어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이 특정 환경에서 배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고 여러 음운 환경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탈락을 가장 많이 유도하는 [áðo] 구조에서보다 오히려 [áðe], [éðe]의 구조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았고, [óðo]와 [éðo]의 구조도 [áðo]와 유사한 수준의 탈락률을 보였다.

음운 환경과 문법 범주의 교차 분석을 통해 쿠스코에서도 [áðo]의 형태를 갖는 복합완료과거의 과거분사에서 탈락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óðo]와 [óða]의 형태를 갖는 *todo(s)*와 *toda(s)* 역시 매우 빈번히 탈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사로 기능할 때와 대명사로 기능할 때 탈락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éðe], [éðo]의 경우에는 *puede, quede, puedo, quedo* 등이 해당되는데, 하지만 문법 범주의 분석에서 동사의 경우 탈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을 상기해보면 동사와 관련해서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일수록 탈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쿠스코 지역어에서 모음 사이 /d/의 탈락이 어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탈락이 빈번한지 확인해보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 역시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락 양상을 살펴보았지만 [강세모음]_[비강세모음]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락은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단어의 사용 빈도 분석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지면상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회 변수에 따른 변이 양상도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쿠스코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 양상은 이러한 다양한 변수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온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래(2023),「쿠스코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s/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Vol. 31, No. 3, pp. 71-97.

Alba, Orlando(2000), "Elisión de la /d/ Intervocálica Postónica," *Nuevos aspectos del español en Santo Domingo*. Santo Domingo: Librería La Trinitaria/Brigham Young University, pp. 51-72.

Almeida, Manuel(2013), "La frecuencia de las palabras en los procesos de variación y cambio,"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43, No. 2, pp. 37-62.

Alvord, Scott, Nelsy Echávez-Solano y Carol Klee(2005), "La (r) asibilada en el español andino: Un estudio sociolingüístico," *Lexis*, Vol. 29, No. 1, pp. 27-45.

Blas Arroyo, José Luis(2006), "Hasta aquí hemos llega(d)o: ¿un caso de variación morfológica? Factores estructurales y estilísticos en el español de una comunidad bilingüe,"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Vol. 25, No. 2, pp. 39-74.

Cedergren, Henrietta(1973), "Interplay of social and linguistic factors in Panama,"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De los Heros, Susana(1998), "La variación de la (λ) en el castellano de Cuzco: un fenómeno de identidad de género, clase social y regionalismo sureño," *Revista Andina*, Vol. 31, pp. 203-210.

De los Heros, Susana(2000), "Análisis de variantes regionales según el modelo variacionista y el de las redes de relación: el impacto de factores sociales en la variación de (r) y (ʎ) en el castellano andino de Cuzco," *Lexis*, Vol. 24, No. 2, pp. 303-337.

Díaz Castañón, Carmen(1975), "Sobre la terminación '-ado' en el español de hoy,"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5, No. 1, pp. 111-120.

D'Introno, Francesco y Juan Manuel Sosa(1986), "Elisión de la /d/ en el español de Caracas: Aspectos sociolingüísticos e implicaciones teóricas," Rafael Núñez Cedeño, Iraset Páez Urdaneta y Jorge Guitart (comp.), *Estudios sobre la fonología del español del Caribe*, Caracas: La Casa de Bello, pp. 135-165.

Escobar, Alberto(1978), *Variaciones sociolingüísticas del castellano en el Perú*,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Gómez Molina, José Ramón y Mª Begoña Gómez Devís(2010), "Mantenimiento y elisión de la /d/ intervocálica en el español de Valencia," *Verba*, Vol. 37, pp. 89-122.

Jiménez Fernández, Rafael(2019), "Elisión de la /d/ intervocálica en hablantes de nivel sociocultural bajo de Sevilla", *Lengua y Habla*, Vol. 23, p. 258-285.

Jiménez Fernández, Rafael(2020), "Variación fonológica de la /d/ intervocálica en el sociolecto alto de Sevilla," *Rilce*, Vol. 36, No. 2, pp. 674-707.

Henríquez Ureña, Pedro(1975), *El español de Santo Domingo*, Santo Domingo: Editorial Taller.

Hualde, José Ignacio(2005), *The Sounds of Span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Kyounglai(2019), "Un estudio sociolingüístico sobre la elisión de /d/ intervocálica en el español andino",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8, No. 2, pp. 163-198.

Malaver, Irania & Lorena Perdomo(2016), "La elisión de /d/ en posición intervocálica en la comunidad caraqueña," *Boletín de Filología*, Vol. 51,

No. 2, pp. 147-179.

Menéndez Pidal, Ramón.(1987), *Manual de gramática históric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Molina Martos, Isabel(1991), "Estudio sociolingüístico de la ciudad de Toledo", Tesis de doctorado,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Molina Martos, Isabel y Florentino Paredes García(2014), "Sociolingüística de la elisión de la dental /d/ en Madrid (Distrito de Salamanca),"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 El Colegio de México*, Vol. 2, pp. 55-114.

Moreno Fernández, Francisco(2005), "Cambios vivos en el plano fónico del español: variación dialectal y sociolingüística," R. Cano (coord.),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Barcelona, Ariel, pp. 973-1009.

Moya Corral, Juan Antonio & Emilio García Wiedemann(2009), "La elisión de /d/ intervocálica en el español culto de Granada: factores lingüísticos," *Pragmalingüística*, Vol. 17, pp. 93-123.

Nitola Torres, Jholman Fabián(2018), "Variación sociofonética en la alternancia [đ]~[ø] intervocálica del habla de Tunja",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Pedagógica y Tecnológica de Colombia.

Peralta Céspedes, Manuel(2017), "Convergencia y divergencia en el español de hablantes dominicanos en Madrid", Tesis de doctorado,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Pérez Martín, Ana María (2003), "Estudio sociolingüístico del español hablado en El Hierro", Tesis de doctorado, 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Reyes Taboada, Verónica (2014), "La variabilidad del segmento /s/ en posición implosiva. Estudio comparativo entre residentes del puerto de Acapulco y migrantes a la ciudad de México", Martín Butragueño, Pedro y Leonor Orozco(Eds.), *Argumentos cuantitativos y cualitativos en sociolingüística: Segundo coloquio de cambio y variación lingüística*, Ciudad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199-220.

Samper Padilla, José Antonio(1988), "Estudio sociolingüístico del español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Tesis de doctorado, Universidad de La Laguna.

Samper Padilla, José Antonio y Ana María Pérez Martín(1998), "La pérdida de

-/d/- en dos modalidades de español canario," *Philologia Canariensia*, No. 4-5, pp. 393-412.

Samper Padilla, José Antonio y Clara Eugenia Hernández Cabrera(2010), "Un estudio de variación fonética en dos corpus grancanarios," Rosa Castañer Martín y Vicente Lagüens Gracia (coords.), *De moneda nunca usada: Estudios dedicados a José Mª Enguita Utrilla*, Zaragoza: Instituto Fernando El Católico, pp. 527-538.

Seco, Rafael(1982),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Aguilar.

Serrano, Julio César(2002), "Dialectos en contacto. Variación y cambio lingüístico en migrantes sonorenses," Tesis de Licenciatura, México: Escuela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Villena Ponsoda, Juan Andrés y Juan Antonio Moya Corral(2016), "Análisis comparativo de un cambio fonológico erosivo. Variación de /d/ intervocálica en dos comunidades de habla (Granada y Málaga)," *Boletín de Filología*, Vol. 51, No. 2, pp. 281-321.

김경래

단국대학교
enriquekim@naver.com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1일

A quantitative study on the elision of intervocalic /d/ in the Spanish of Cusco

Kim, Kyoung-Lai
Dankook University

Kim, Kyoung-Lai(2023), "A quantitative study on the elision of intervocalic /d/ in the Spanish of Cusco",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3), 87-117.

Abstract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intervocalic /d/ variation in the Spanish spoken in Cusco, Peru. To carry out this, 24 sociolinguistic interviews conducted by the author of this article were analyzed. Three variants of intervocalic /d/ have been established and 2400 token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in Cusco the intervocalic /d/ is elided by 36%, placing the Spanish of this city close to Granada, Malaga and Las Palma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attern of variation of this segment in this city is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Spanish-speaking communities. The phonological context '-ado' is not exclusively superior to other contexts and no great percentage distance is observed between '-ado' and other contexts, which means that the elision of intervocalic /d/ is extended to other phonological contexts such as [áðe], [éðe], [óðo], [éðo], [íðo], [áða], [óða] where the elision of the intervocalic /d/ is frequent.

Key words quantitative linguistics, dialectology, phonological variation, intervocalic /d/ variation, Spanish of Peru